글_ 김용구(기업책임을 위한 시민연대 간사)

지구 온난화가 다르푸르 학살의 원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아프리카 수단 다르푸르 지역에 2만6천 명의 평화유지군을 주둔시키는 내용을 지난 7월 31일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다르푸르'는 '푸르족의 집'이라는 의미로 아프리카 원주민 푸르(Fur)족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수단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아랍계를 대변하는 수단정부의 '아랍화 정책'의 반발로 다르푸르 분쟁은 시작되었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아랍계 주민들이 만든 '잔자위르 민병대'에 있었다. 이들은 푸르족 마을에서 어린 소녀를 강간하고 민간인을 불태워 죽이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비 아랍계에 대한 인종 청소를 개시하였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20~30만 명이 살해 당했고, 25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잔자위르 민병대를 지원하고 학살을 방조하고 있는 수단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은 거세지고 있다.

인종간, 종교간 대립으로 보이는 다르푸르 분쟁에 대해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다르푸르 참사의 근본 원인은 지구 온난화'라는 색다른 주장을 해 주목을 받았다. 지난달 16일 워싱턴 포스트에 실은 그의 기고문에 의하면, 과거 목축에 종사하던 북부 아랍계와 농사를 짓던 남부 흑인들이 평화롭게 살았지만,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강수량이 크게 줄면서 남부 농민들과 북부 아랍계가 식수와 곡물로 다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극악 무도한 학살의 원인을 환경문제에서 찾는 색다른 주장이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할 때 단골 메뉴로 중요하게 대두되는 기후변화 이슈가 유독 한국에서는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신선한 주장이었다.

그런가 하면 시장에서의 반응도 눈에 띈다. 투자 주식회사 버크셔 헤서웨이 주주들이 다르푸르 학살의 책임이 있는 페트로차이나 지분을 매입한 것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으며, 오너인 워렌 버핏이 항의를 수용해 페트로차이나의 일부 지분을 매각한 것이다. 이에 따라 7월 30일 홍콩 증시에서 페트로차이나의 주가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페트로차이나는 중국 국영 기업인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공사(CNPC)의 자회사다. CNPC는 수단의 원유매장량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그 동안 40억 달러를 수단에 투자했고, 2005년엔 25억7천만 달러어치 원유를 수입했다. 버크셔 헤서에이 주주들은 결과적으로 페트로차이나의 기업활동은 다르푸르 학살을 자행하는 수단 정부의 주요 자금제공원 역할을 했다고 판단한 것이며, 그런 기업의 지분을 매입한 것은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투자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사회책임투자자들은 수단정부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들을 투자리스트에서 제외하거나 투자 회수에 나서고 있다. 학교 또는 종교 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이 그 중심에 서있다. 또한 18개 주에서 수단으로부터의 투자철수에 대한 정책을 받아 들여 과거 아파르트헤이트(백인들에 의한 극단적인 인종차별 정책)의 남아공 정권에 대한 전면적인 투자회수와 비슷한 양상으로 번져가고 있다. 80년 당시 남아공 정권과 백인들은 국제사회로부터 스포츠 대회 참여 금지, 투자회수로 인한 해외자본 유치가 급격히 감소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었으며 그 결과 서서히 차별제도와 관습들이 폐지되었다.

수단 다르푸르 학살의 책임을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인류 또는 구체적으로 기업에게서 찾는다면 가혹하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학살에 공조하거나 방조한 수단정부와 관련된 기업활동을 했다고 해서 학살의 책임을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더구나 그런 기업에 투자했다고 해서 학살에 일조했다고 말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억울해 보인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보자는 것이 기업윤리고 사회적 책임이며, 사회책임 투자이다. 국제사회는 인간과 지구환경을 배려하는 기업만이 장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며,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시장적 논리에서 그것들을 이해하기를 권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 앞서 기업활동과 자본에도 '정의'가 깃들어 있어야 한다는 당위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다.